

# 사회연결망이 뇌물의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Social Networks upon Conceptions of Bribery

김 우 식(Usic Kim)\*

### ABSTRACT

Based on national data set,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network actions across multiple ties increase insensitivity to illegality of bribery and insensitivity to punishment possibility. Networks based on the ties through ancestral hometown, kinship, and alumni, three major networks in Korea, have been important social milieu and social capital for the general public in Korea. A high proportion of Koreans hold ties or become active in at least one of the three networks, while a substantial proportion of Koreans are not active at all. Multiple actions in the multiple networks provide the tie holder with both bonding type and bridging type of social capital, i.e., access to opportunity, information, and trust. Those who are active in multiple networks can take advantage of the two types of social capital for bribery purpose, and are more likely to be insensitive to illegality of bribery or punishment possibility or both. This study focusing on the negative side of social networks can contribute to research traditions on corruption or bribery as well as social capital from social networks.

Key Words : 뇌물(bribery), 다중연결망(multiple network), 관계적 교류(relational association), 연결망 특혜(within-network favoritism), 결속형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 매개형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

## I. 서론

사회연결망은 사회자본으로서만 기능하지 않고 부패와 뇌물수수가 일어나는 사회적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Baker and Faulkner, 2004; Brass, Butterfield, and Skaggs, 1998; Granovetter, 2007). 여러 연구에 의하면 사회연결망에서 발생하는 신뢰는 신뢰하는 사람이 일탈행위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Lambert-Mogiliansky, 2002; Treisman, 2000), 연결망이 여러 지역에서 범죄문화를 전파하는 온상이 되기도 한다(Browning, Feinberg, and Dietz, 2004; Younts, 2008). 연결망이 일탈적 도덕적 해이나 고립을 초래하기도 하고(Portes, 1998), 범죄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사회자본을 제공하기도 한다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데이터를 제공해준 한국사회과학자료아카이브(KOSSDA), 석현호, 윤정구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논문초고에 귀중한 조언을 제공해준 윤정구, Mark Whitaker, 강정환, 이원재 교수와 이병규 대학원생, 그리고 학술지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김우식. 우편번호 120-750. 이메일: lochglen@gmail.com

(Browning et al., 2004). 이런 관점은 사회연결망이 공동체의 규범과 구성원들의 참여 제고를 통해 부패와 범죄를 억제한다는 관점과는 정반대 위치에 있다(Bellair, 1997; Campbell and Lee, 1992; Coleman, 1988; Granovetter, 1973; Hunt, 2004; Kasarda and Janowitz, 1974; Sampson and Groves, 1989).

기존 연구들은 한국의 부패현상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시사점과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연결망과 부패 간 관계를 보면(권오성, 2005; 백완기·전수일·하태권·박종구·이선우, 2000; Manion, 1996) 두 관점 모두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 첫째는 한국에서의 부패, 특히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특정 범죄단체의 행동으로만 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이다. 강력범죄는 테러리스트나 범죄단체의 소행으로 여겨지지만(Cartier-Bresson, 1997; Gambetta, 1993; Kingston, 2007; Manion, 1996; Tavits, 2010), 부패나 뇌물수수 등 일반대중들 사이에 형성된 연결망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

둘째, 부패나 뇌물수수는 성격이 다른 복수의 연결이 공존하는 다중연결망(multiple networks)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이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 신문보도나 연구들을 보면 부패에 미치는 다중연결망의 영향은 단일연결망에서와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다중연결망의 이런 고유한 효과가 뇌물 문제에서만 다르리라고 보기는 어렵다(Gould, 1991; Krohn, Massey, and Zielinski, 1988).

셋째, 연결망과 부패 간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인지적 차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연결망 구성원들이 부패나 뇌물에 관여할 때 연결망에서 공유되는 인식과 실천방식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 행위가 연결망이나 조직 내에서 공유되는 인식방식에 의해 영향받는 점은 여러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다(Bernstein, 1975; Milroy and Milroy, 1992; Vaughan, 1999). 인지적 차원에 대한 초점이 필요한 것은, 행위자들이 뇌물을 공여할 때 어떤 생각을 하기에 그렇게 하는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행위자가 구성하는 주관적 현실이 행위자의 행위로 직결되는 경우에는 인지적 차원이 가장 중요한 연구항목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에서 학연, 지연, 혈연의 다중연결망이 일반대중들 사이에서 뇌물수수와 관련된 인식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여, 한국 사회의 다중연결망이 행위자들의 뇌물수수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검토

### 1. 연결망의 사회자본과 인지적 차원

뇌물공여란 공식적인 의무를 가진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직책의 임무를 위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상을 주는 행위를 가리킨다(Johns and Bagaric, 2002). 뇌물행위를 억제하는 주요 요인은 불확실성이다. 뇌물공여를 염두에 두는 사람들은 불확실성 때문에 실행을 망설인다. 뇌물제공 제안을 상대가 거절할 수도 있고 뇌물공여를 시도했다가 처벌받거나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뇌물공여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객관적 환경과 주관적 믿음(subjective belief)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객관적 환경은 뇌물공여나 그 효과를 쉽게 만들어주는 행위자 외적 환경을 가리키고 주관적 믿음은 행위자 본인의 주관적 정당성 인식과 주관적 성공확률을 가리킨다. 객관적 환경을 행위자 본인이 인식하거나, 혹은 명료하게 의식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객관적 환경으로 인해 뇌물공여에 성공했거나 성공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주관적 믿음을 강화하게 되므로 객관적 환경은 주관적 믿음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행위자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위험할 수도 있는 행위를 할 때는 주관적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Kollock and O'Brien, 1992). 자신의 행위가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믿음과 위법행위라고 해도 처벌받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주관적 믿음의 주요 형태이다. 주관적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 중 중요한 것이 사회연결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 의하면 행위자가 사회연결망으로부터 사회자본을 기대하거나 사회연결망이 행위자의 인식을 형성하기 때문에, 연결망 행위자가 뇌물공여행위를 불법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혹은 처벌가능성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따라서 행위자에게 영향을 주는 객관적 환경이나 주관적 믿음은 그가 속한 연결망 구조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연결망이 제공하는 사회자본은 기회에의 접근(access to opportunity), 정보(information), 신뢰(trust)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뇌물공여를 도와주는 객관적 환경이 되면서 동시에 행위자에게 주관적 믿음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뇌물공여 행위 가능성을 높이는데 이런 과정이 한국 사회에서는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비리로 일컬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김영중, 1996).

## 1) 연결망에서의 기회 접근

사회연결망이 제공하는 객관적 환경으로서의 사회자본 중 하나는 기회에 대한 접근이다. 연결망은 행위자들에게 광범위한 직접, 간접적 연결을 제공하면서 유리한 기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차원에 대한 연구로는 연결망의 연결성(connectivity)이 부패에 기여함을 지적한 연구들이 있다(Baker and Faulkner, 1993, 2004; Brass et al., Skaggs 1998; Gambetta, 1993). 연구나 관찰에 의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연결망을 통해 유리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연결망을 부패나 뇌물공여에 이용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객관적 가능성은 행위자 본인의 주관적 믿음에 영향을 준다. 기회를 제공해주는 연결망이 광범위하고 효과적일수록 행위자는 뇌물공여의 성공가능성을 높게 인식할 수 있다. 이런 행위자는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연결망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인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광범위한 연결망의 존재는 연결망을 통해 뇌물을 공여하거나 뇌물공여 기회를 얻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

## 2) 연결망과 정보

불확실성 하에서 행위자들은 연결망으로부터 얻는 정보와 해석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Beckman and Haunschild, 2002). 연결망은 암묵적 정보나 비합법적 정보를 전달하는데 특히 효과적이다. 행위자들은 공식적인 정보보다는 개인적 정보에 의해 더 쉽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행위자들은 그들이 얻는 신호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해석의 기초가 되는 것은 신호에 대한 논의와 해석이 이루어지는 연결망이다. 연결망 속에서 행위자들은 새로운 행동방식을 소개받고 논의하고 이런 해석과 지식을 타인들에게 전달한다(Powell, Koput, and Smith-Doerr 1996; Reagans and McEvily 2003). 연결망은 지식의 전수나 재해석, 종합에서 특히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 연결망의 이런 특성은 뇌물 상황에서도 그대로 작동하여 구성원들에게 정보와 해석을 제공해준다.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연결망이 주는 정보와 해석의 이점은 뇌물공여를 도와주는 객관적 환경이 됨과 동시에 행위자에게 뇌물의 불법성이나 처벌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

## 3) 연결망과 신뢰

뇌물공여와 같은 위험상황에서 정보만으로 행위자가 움직이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뇌물공여 행위가 안전하다는 주관적 믿음이다. 행위의 안전성에 대한 믿음은 주로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과 처벌가능성 인식이다(Kollock and O'Brien, 1992).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인식이나 처벌받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져다주는 원천으로서 유력한 것이 비공식 연결망이다. 사회연결망이 행위자 인식의 준거틀에 영향을 주고 태도를 구성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Bernstein, 1975; DiMaggio, 1997; Smith-Lovin, 2007; Uzzi, 1999).

사회연결망은 종종 공통의 실천(common practice)의 네트워크로서 기능한다(Milroy and Milroy, 1992; Zelditch, 2001). 공통의 실천 네트워크 안에서 구성원들은 신념과 가치를 공유하고 공통의 세계를 구성한다. 구성원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담론, 이해, 상황의 해석, 그리고 문제해결 방식을 공유할 뿐 아니라 공통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특정 행동에 대해 지지를 제공한다(Brown and Duguid, 1991; DiMaggio, 1997; Orr, 1990). 연결망이 갖는 인지적 효과 때문에 밀도 높은 연결망 내에서 부패가 발생하는데(Cartier-Bresson, 1997) 일탈행위가 국지적으로 인정되기도 한다(Abolafia, 1996; Younts, 2008).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당성은 행위자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뇌물이나

다른 위험한 상황에서 신념을 줄 수 있다(Tavits, 2010). 인지적 차원은 행위자 본인에게는 주관적 믿음을 주면서 동시에 관련된 사람들도 그렇게 믿게 함으로써 뇌물공여행위를 쉽게 만들어주는 객관적 환경이 되기도 한다.

## 2. 다중연결망과 그 효과

### 1) 다중연결망의 효과

연결망과 뇌물수수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본 연구의 이론적 초점은 다중연결망과 인지적 차원의 두 가지이다. 다중연결망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학연, 지연, 혈연이 사회자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부패와 뇌물의 온상이 된다는 속설이 있는 점을 볼 때 이들 연결망의 조합이 뇌물공여에 고유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점은 사회연결망 연구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중연결망은 이질적인 성격의 연결에 의한 복수의 연결망이 공존하는 것을 가리키는 데 대부분의 사회행위자가 여러 가지 연결망 속에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합성이 높다. 다중연결망에 대한 주요 연구를 보면, 다수의 연결이 갖는 기본적인 구조를 본 연구들이 있고(Lin, Ensel, and Vaughn, 1981; Verbrugge, 1979; Wellman and Wortley, 1990), 다수의 연결이 갖는 개별적 효과를 비교하는가 하면(Gibbons, 2004) 정보와 질병의 전파에서 개별 연결망의 효과에 비해 다수의 이웃 연결망이 동시에 작동할 때의 효과를 본 경우가 있고(Centola, Macy, and Eguiluz, 2005), 연결망 범위의 개념을 사용하여 다양한 노드들과의 연결이 갖는 효과를 보기도 하였다(Burt, 1983; Granovetter, 1973; Haines and Hurlbert, 1992). 이들 연구는 다중연결망과 부패행위와의 관계를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회현상에서 다중연결망이 단일연결망과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초가 된다(Ingram and Roberts, 2000; Lai and Wong, 2002; Smith-Lovin, 2007).

### 2) 한국의 다중연결망

한국의 대표적인 연결망은 지연, 혈연, 학연이다(신의항·송효환, 2003). 직장, 군복무, 종교단체도 중요한 연결망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어온 세 가지에 초점을 둔다. 세 가지 연결망의 구성원들은 개인적 관계,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연고주의를 존중하는 문화를 갖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타인을 판단함에 있어서 보편적 기준을 적용하는 보편주의적 태도보다는 개인적으로 알고 동일한 연결망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특수주의적 태도와 개인보다 집단을 강조하는 집단주의적 태도를 갖는다(권오성, 2005; 김동훈, 2002; 백완기 외,

2000; Parsons and Shils, 1951).

지연, 혈연, 학연은 삶의 과정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이들 연결망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연결망 행위에 의해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도 이들 연결망은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에의 참가와 활동에 의해 유지된다. 연결망은 연결망 행위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연결망은 연결망 행위를 가능하게 해주므로 연결망과 연결망 행위(network action)는 기든스가 말하는 것과 유사한 일종의 이중성(duality) 관계에 있다(Giddens, 1984). 이들 연결망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연결망 행위는 관계적 교류(relational association)와 연결망 내 특혜(within-network favoritism)이다. 전자는 연결망 구성원들과 교류하는 것으로서 동창회 등을 통해 특정 연결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 후자는 동일한 연결망에 속하는 다른 구성원에게 배타적인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다(Johns and Bagaric, 2002). 우선 관계적 교류의 바탕이 되는 세 가지 단체 혹은 연결망을 본다.

지연과 관련되는 향우회는 고향이 같은 갖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유지된다. 고향이란 행위자 본인이 태어난 곳이라기보다는 행위자의 부친이나 조상들이 대대로 태어나고 살았던 지역을 가리키는데, 시, 읍, 면을 의미하기도 하고 규모가 큰 도나 영남, 호남과 같이 지역을 가리키기도 한다. 동일한 고향을 갖고 동일한 향우회에 속하는 사람들은 지연을 통해 취직, 승진, 투표 등에서 혜택을 주고받기 때문에 지연은 한국인에게 있어 중요한 삶의 환경이다(신의항·송효환, 2003; 유의영, 2003).

두 번째 연결망은 종친회와 이와 관련된 혈연 연결망이다. 종친회는 동일한 가문에 속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직계와 방계가족까지 포함하면서 혈연의 기초가 된다. 지연이나 혈연은 최근으로 올수록 영향력이 약화되어왔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연결망이 되고 있으며 부모형제나 친척이 취업, 승진을 비롯한 삶의 기회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된다(권오성, 2005).

세 번째 연결망은 동창회와 관련되는 학연 연결망이다.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수준과 단위별로 동창회가 구성되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영향력이 큰 것은 고등학교 동창회와 대학교 동창회이다. 고등학교에 의한 학연은 지역이나 가족에 의한 지연, 혈연과 중복되기도 하는데 중복될 때 소속감은 더욱 커진다. 대학 동창도 고교 동창 못지않게 중요한 연결망으로 작용한다. 고교생들 중 대학 진학률은 점점 증가하여 이제는 인구 중 다수가 대학졸업자인데다가 대학에는 전공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은 졸업 후 직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직업에서 형성되는 연결망은 대학의 동일학과 동창을 중심으로 하고 고교동창에 의한 연결이 뒷받침하는 형태가 된다. 동창들은 취업, 승진, 사업 등 다양한 기회에서 도움을 주고받는다(김동훈, 2002; 김용학, 2003; 신의항·송효환, 2003; 유의영, 2003). 세 가지 단체들은 세 가지 연결에 의해 구성된 다중연결망을 유지하는 조직적 기반이 된다. 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각 연결망과 관련하여 관계적 교류라는 연결망 행위를 하게 되며 여러 연결망에 관여하면서 다중연결망의 특성을 살릴 수 있

다.

두 번째 연결망 행위는 연결망 특혜이다. 연결망 특혜는 동일한 연결망에 속한 다른 구성원에게 배타적인 특혜를 주는 것을 가리킨다. 연결망 특혜는 두 사람이 직접 혜택을 주고받는 형태나 일반화된 교환과 같이 특정 집단 내에서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고받는 형태를 포함하는 연결망 내 교환(within-network exchange)이다(DiMaggio and Louch 1998). 연결망 특혜는 그 자체로도 연결망 행위이지만 많은 경우 관계적 교류와 직결된다.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으면 동창회와 같은 관계적 교류에 참여하도록 기대되거나 나중에 다른 구성원에게 특혜를 제공하도록 기대되기도 한다. 이런 활동은 연결망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연결망 행위가 된다. 연결망 특혜는 마피아에 비유되면서 정치, 정부, 학계, 기업 등에서 부패와 비효율의 근원으로 지적되고 비판받지만 여전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권오성, 2005; 김동훈, 2002).

### 3) 다중연결망과 사회자본

한국에서 연결망이 행위자들의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징으로서 다중연결망을 들 수 있다. 세 가지 연결망은 결합하여 작동하면서 뇌물공여와 관련된 행위자들의 객관적, 주관적 변수에 영향을 준다. 학연, 지연, 혈연의 다중연결망은 단일연결망의 효과에 비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존하기 어려운 결속형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매개형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의 두 가지 사회자본을 다중연결망이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강한 연결을 통해 다양한 상대와 연결되게 해주기 때문이다.

결속형 사회자본은 유사한 성격을 가진 행위자들 사이에서 생성되는 사회자본으로서 보통 강한 연결에 기초하며 신뢰, 유대감이나 닫힘(closure)에 의한 통제가 대표적인 예이다(Coleman, 1988; Putnam, 2000; Schuller, Baron, and Field, 2000). 매개형 사회자본은 이질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자들을 결합하거나 매개함으로써 생성되는 사회자본인데 매개하는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결관계가 닫히기 쉬운 강한 연결보다는 약한 연결에서 더 쉽게 나타난다. 다양한 정보나 통제, 기회가 매개형 사회자본에 해당한다. 사회자본의 두 형태인 닫힘과 매개(brokerage)도 상당 정도 이 분류와 중첩된다(Burt, 2002; Coleman, 1988). 두 가지 사회자본은 하나는 강한 연결, 하나는 약한 연결에 의존하므로 공존하기 어려우나 한국의 학연, 지연, 혈연에서의 다중연결망은 두 가지 사회자본을 공존시킨다는 점이 특징이다. 학연, 지연, 혈연의 개별 연결망은 동질적 행위자들 사이에 높은 결속력을 가져와 결속형 사회자본인 신뢰를 제공한다. 반면 여러 연결망들은 비교적 이질적인 행위자들을 연결시켜 매개형 사회자본인 다양한 정보와 해석방식을 제공해준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구성되는 다중연결망의 특징은 개별 연결이 결속형 사회자본을

가능하게 하는 강한 연결의 특징을 가지면서도 이런 강한 연결들이 하나로 합치지 않고 이질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하면서 매개형 사회자본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단일연결망에서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과 각각 강한 연결을 유지하면서 결속형 사회자본을 얻고 동시에 서로 이질적 연결로부터 매개형 사회자본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강한 연결이 여럿 있으면 그라노베터가 지적한 이행성 때문에 다양한 연결이 하나의 연결로 통합되어버리고 연결의 다양성을 상실함에 따라 매개형 사회자본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세 가지 연결에서는 이것이 가능한데 이유는 자원보다는 감정에 의해 유지되면서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다중연결망이 갖는 특징 때문이다.

첫째는 강한 연결이 수여하는 행위자들이 연결망에 투자하는 시간이나 자원 보다는 감정적 몰입에 기초한다. 연결의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이다(Granovetter, 1973; McPherson, Smith-Lovin and Brashears, 2006). 세 연결망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은 다른 구성원들을 반드시 자주 만나 많은 시간과 자원을 소비하지 않아도 동일한 출신을 바탕으로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동시에 여러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들 연결망은 많은 시간과 자원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적 강도가 높기 때문에 강한 연결망에서 가능한 결속과 신뢰라는 결속형 사회자본을 제공한다. 둘째는 세 가지 연결망이 어느 정도는 중첩되기 때문에 세 연결망을 각각 유지하는 노력을 합한 것에 비해 세 연결망을 동시에 유지하는 데 드는 노력은 비교적 작다. 예를 들어, 고교 동창이 동시에 향우회 친구가 되면 한 사람만 만나도 학연과 지연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 겹치지 않는 개별 연결망을 다수 유지하려면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 셋째는, 세 연결망 간 중복은 부분적인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각 연결망은 중복되지 않는 정보와 다양한 해석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한 개인은 세 연결망으로부터 새로운 정보와 해석, 그리고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Burt, 2002; Granovetter, 1973). 그러면서도 각 연결은 감정적으로 결속되기 때문에 구성원 간 유대감과 신뢰는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다수의 연결망을 유지하도록 하는 동기가 생긴다.

### III. 연구의 틀

다중연결망 속에 있는 행위자는 동시에 결속형 사회자본과 매개형 사회자본인 기회에의 접근성, 정보와 해석, 결속과 신뢰라는 사회자본을 얻을 수 있고 이를 뇌물공여에 이용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 속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뇌물공여의 성공률을 높이고 비용을 덜 들여도 되게 함으로써 행위자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행위자는 자신의 뇌물공여 행위가 처벌되리라는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된다. 또한 다중연결망 속에서 형성되는 세계관과 인지적 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행위자는 뇌물공여를 행하더라도 그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게 된다. 즉 다중연결망의 특징은 행위자에게 객관적 환경에 의한 자신감이나 주관적 믿음을 제공함으로써 행위자가 뇌물공여를 불



법으로 인식하거나 뇌물로 인해 처벌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한 행위자가 얼마나 다양한 다중연결망 속에 있는가에 따라 뇌물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달라지리라 볼 수 있다.

## 1. 뇌물의 불법성에 대한 둔감성

다양한 연결망에서 관계적 교류 방식에 의한 연결망 행위를 하는 행위자는 다중연결망에서 오는 다양한 사회자본을 기초로 자신의 뇌물공여 행동에 더 자신감을 갖는다. 그는 또한 이런 관심을 공유하는 다중연결망 속에 있기 때문에 뇌물이 불법이라는 생각을 덜 하게 된다. 이 효과는 관여하는 연결망의 수가 많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1: 관계적 교류를 행하는 연결망이 많은 사람일수록 뇌물의 불법성에 대해 더 둔감하다.

연결망 특혜에 의한 연결망 행위를 다양한 연결망에서 행하는 행위자는 다중연결망이 제공해주는 다양한 사회자본을 기초로 자신의 뇌물공여 행동에 자신감을 갖는다. 그는 또한 이런 관심을 공유하는 연결망 속에 있기 때문에 뇌물공여가 불법이라는 생각을 덜 하게 된다. 이 효과는 관여하는 연결망의 수가 많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2: 연결망 특혜를 행하는 연결망이 많은 사람일수록 뇌물의 불법성에 대해 더 둔감하다.

## 2. 뇌물의 처벌가능성에 대한 둔감성

다양한 연결망에서 관계적 교류 방식에 의한 연결망 행위를 하는 행위자는 다중연결망에서 오는 다양한 사회자본을 기초로 자신의 뇌물공여 행동에 더 자신감을 갖는다. 연결망의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한 과거의 뇌물 성공에 의해 고무될 수도 있고, 사회자본을 인식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행위자는 또한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다중연결망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뇌물공여가 처벌로 연결되리라는 생각을 덜 하게 된다. 이 효과는 관여하는 연결망의 수가 많을수록 커진다.

가설 2.1: 관계적 교류를 행하는 연결망이 많은 사람일수록 처벌가능성에 대해 더 둔감하다.

다중연결망에서 연결망 특혜에 의한 연결망 행위를 하는 행위자는 다중연결망에서 오는 다양한 사회자본을 기초로 자신의 뇌물공여 행동에 더 자신감을 갖는다. 연결망의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한 과거의 뇌물 성공에 의해 고무될 수도 있고 뇌물공여를 처음 하는 경우에도 사회자본을 인식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행위자는 또한 유사한 생각을 공유하는 다중연결망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뇌물공여가 처벌로 연결되리라는 생각을 덜 하게 된다. 이 효과도 관여하는 연결망의 수가 많을수록 커진다.

가설 2.2: 연결망 특혜를 행하는 연결망이 많은 사람일수록 처벌가능성에 대해 더 둔감하다.

## IV. 연구 방법

### 1. 자료와 종속변수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성균관대학교의 서베이리서치 센터가 2002년 실시한 기초질서에 관한 설문조사이다(윤정구, 석현호, 차종천, 2002).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로 진행된 이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1,500명 중 유효응답자는 1,435명으로 응답율은 95.7%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뇌물의 불법성에 대한 둔감도”와 “뇌물 처벌에 대한 둔감도”의 두 가지이다. 앞으로 두 변수를 간략하게 “불법둔감도”와 “처벌둔감도”로 지칭한다. 불법둔감도 변수는 다음과 같이 이항변수로 구성하였다. 응답자가 뇌물을 직접 제공하거나 남을 위해 뇌물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면서 동시에 자신은 법을 잘 지킨다고 답했으면 변수 값을 1, 아닌 경우에는 0으로 하였다. 처벌둔감도는 뇌물을 수수한 정도에서 불법행동이 처벌받는다고 느끼는 정도를 뺀 값이다.

두 변수를 구성하는데 핵심이 되는 뇌물수수와 관련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은 “일을 잘 처리해달라고 공무원에게 선물이나 현금을 준 경우”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 처리 부탁을 받고 선물이나 현금을 준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혀 없음”, “간혹”, “다소 자주”, “상당히 자주”, “매우 자주” 중 하나로 답하였다. 응답자가 두 가지 뇌물수수 행위가 전혀 없다는 답을 한 경우에는 변수값으로 0, 두 유형을 합쳐 조금이라도 있다고 답한 경우에는 변수값으로 1을 부여하였다. 응답 간 신뢰도는 높다(크론바하의 알파 = .74).

뇌물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둔감한 정도는 이항변수인데 응답자가 뇌물에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법을 잘 지킨다고 믿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법을 지키는 것은 정도의 문제이기보다는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둘 중 하나인 특성이 강하다고 보고, 뇌물공여와 법준수 의식 간의 불일치를 이항변수로 측정한다. 스스로 법을

잘 지킨다고 믿는 정도는 문항 “귀하는 귀하 자신이 법을 얼마나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매우 잘 지킨다”, “잘 지키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잘 안 지키는 편이다”, “매우 안 지키는 편이다”의 다섯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등간척도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불법둔감도 변수값이 1인 응답자는 뇌물제공을 한 적이 있지만 자신이 법을 지키는 편이라고 답했다.

처벌둔감도 변수는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가 처벌되리라고 믿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뇌물활동의 강도에서 불법활동이 처벌되리라고 믿는 정도를 뺀 값이다. 이 변수를 구성하는 두 질문 중 위법활동이 처벌된다고 믿는 정도를 묻는 질문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이 변수는 등간변수로 측정되었다. 처벌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 확률이므로 강도를 나타내는 연속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 변수는 뇌물활동에 관한 부분과 처벌 믿음에 대한 부분의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그 중 후자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답을 평균하였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위법행위가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적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법행위가 실제로 처벌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엄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부도덕한 행동을 했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의해서 지적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도덕한 행위를 지적받는 사람들이 평판을 나쁘게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 다섯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매우 높다”, “다소 높다”, “그저 그렇다”, “다소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처벌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는 변수는 다섯 질문에 대한 응답을 -2에서 2까지의 값을 갖는 등간척도로 바꾸어 취한 평균값이다. 다섯 문항에서 구성한 척도의 신뢰도는 높은 편이다(크론바하의 알파= .75).

## 2.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연결망 활동과 관련된 독립변수 중 등간변수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연결망 참가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관계적 교류를 행하는 연결망의 수를 측정하는 “다중교류(multiple associations)”이고 다른 하나는 연결망 특혜를 행하는 연결망의 수를 측정하는 “다중특혜(multiple favoritism)”이다. 다중교류를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모임이나 단체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자들은 중친회, 향우회, 동창회에 대해 다음 다섯 가지 항목 중 하나를 택하여 답하였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 “회원 가입만 되어 있다”, “모임에 가끔 참여했다”, “모임에 자주 참여했다”,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전혀 참여하지 않은 선택에는 0점, 나머지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4점까지 부여하였다. 연결망 활동 참가정도는 세 가지 모임 중 최소한의 참여태도를 보인 모임이 몇 개인가를 측정하였다. 이 변수는 회원가입이나 그 이상 최소한의 참가를 한 모임의 종류의 수

를 측정하므로 값은 0에서 3까지이다.

두 번째 연결망 등간척도 변수는 다중특혜이다. 응답자들은 “귀하가 신입사원 한 명을 뽑아야 하는 어느 한 회사의 부서장이라고 가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동일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이 지원하였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귀하는 누구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라는 질문을 받고 상대가 동향 사람일 때, 학교 동창일 때, 친척일 때의 세 상황에서 다음 다섯 가지 응답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매우 유리하다”, “다소 유리하다”, “그저 그렇다”, “다소 불리하다”, “매우 불리하다”. 세 가지 성격의 연줄에 대해 각 응답을 -2에서 2에 이르는 5점 척도로 만든 후 이 중 조금이라도 특혜를 주어, 1점 이상의 값을 갖는 연줄의 수를 세어 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결망 활동과 관련된 변수는 이상 정의한 등간변수 외에 이항변수들이 있다. 응답자들이 특정 연결망 활동 유형이나 특혜 유형에 해당되면 그런 유형을 1로 하고 나머지를 0으로 놓는 이항변수를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참가(향,동)” 변수는 응답자가 향우회와 동창회에 참여하면 1, 아니면 0 값을 갖고, “특혜(향,중,동)” 변수는 응답자가 향우, 종친, 동창 모두에게 특혜를 주면 1, 아니면 0을 값으로 갖는다. 연결망 유형을 결합시키는 것이므로 이 변수는 총 7가지이다.

통제변수들이 있는데 인구학적 변수로는 남성 여부, 결혼 여부, 연령, 가구월소득, 교육년수, 직업이다. 직업도 이항변수로 구성되는데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 숙련노동자, 미숙련노동자, 미취업으로 되어 있다. 이들 이항변수의 기본범주는 농수산업업이다. 직업의 성격이 해당 종사자의 뇌물관련활동이나 연결망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을 고려한다(Brass et al. 1998; Treisman 2000).

유교적 사회화 변수는 유교적 교육이나 사회화의 정도를 측정한다. 도덕교육이 일탈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 변수를 통제하고자 한다(윤정구, 석현호, 이재혁, 2004). 윤정구 교수 등의 이 연구는 사회연결망의 효과를 연구하지는 않았으나 문화 관련 변수와 아노미의 영향을 잘 보여준다. 유교적 사회화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문항은 질문 “귀하가 청소년이었을 때 귀하의 부모님은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떠하셨는지를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중 하나로 답해 주십시오”에 대해 다섯 가지이다: “부모에게 절대 복종하도록 가르치고 실제로 매우 엄격하셨다”, “세상이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자에게 더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연장자는 손아래 사람에게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옛날 식으로 해서 손해보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옳던 그르던 윗사람의 명령은 일단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다섯 질문에 대한 응답은 모두 -2에서 2까지의 값을 갖는데, 다섯 가지 값의 평균을 구하여 유교적 사회화 변수로 사용하였다(크론바하의 알파=.83).

권위주의적 태도도 일탈행동이나 뇌물 관련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 변수도 통제변수로 추가한다(권오성, 2005; 김우식 2002). 응답자들은 세 문항 “나는 윗사람이 틀린 말을 하는 경우에 공공연하게 반박하기를 겁낸다”, “부하들에게 자주

자문을 구하는 상사는 무능하다”, “윗사람은 권위와 위엄을 갖춰야 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의 다섯 항목 중 하나로 답하였다. 권위주의적 태도 변수는 세 질문에 대한 답을 평균하여 사용한다(크론바하의 알파 = .50). 주관적 처벌가능성은 위법행위의 처벌가능성에 대해 응답자들이 답한 것으로서 종속변수 중 처벌가능성에 대한 둔감도를 측정할 때 사용한 주관적 처벌 가능성과 동일하다.

행위자들의 아노미 정도가 뇌물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윤정구, 석현호, 이재혁, 2004). 따라서 아노미 변수도 통제변수로 추가한다. 응답자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게 될 세상은 더 혼란스러울 같아서 심히 걱정된다”,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상황에 따라 규칙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확고한 규칙은 없는 것 같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주 회의를 느낀다”, “살아가는데 너무 결정할 것이 많아서 결정을 포기할 때가 있다”, “신앙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진정 어떤 것을 믿고 따라야 되는지 모르겠다”, “확인을 가지고 일하지 못할 때가 많다”의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의 다섯 항목 중 하나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7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평균하여 아노미 변수로 사용하였다(크론바하의 알파 = .77). 마지막으로, “주관적 계층지위”는 한국사회의 층위를 최하위인 1에서 최상위인 7까지 구별했을 때 응답자가 스스로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 V. 분석결과

### 1. 기술 통계

뇌물의 불법둔감도와 처벌둔감도의 기본통계량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처벌둔감도의 평균이 음수인 이유는 이 변수를 구성하는 두 변수인 주관적 법준수의식과 뇌물관계 정도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요 독립변수인 관계적 교류와 연결망 특혜 변수는 분포가 다르다(표 1). 평균값은 다중특혜보다 다중교류에서 더 작다. 이는 시간, 돈, 관심이 필요한 관계적 교류를 행하는 연결망 수가 더 작음을 보여준다. 이항변수들을 보면, “교류(없음)” 변수의 평균값은 .265 이므로 응답자의 26.5%가 관계적 교류를 행하지 않음, 즉 세 단체 중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향우회만 참가하는 비율은 종친회만 참가하는 비율이나 동창회만 참가하는 비율에 비해 낮다.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동창회이다. 여러 단체에 참가하는 비율을 보면, 세 가지 단체에 모두 참여함을 가리키는 “교류(향,종,동)” 변수의 평균은 .160 으로서 상당히 높다. 또한 세 가지 연결망 모두에 대해 특혜를 주는 “특혜(향,종,동)” 변수 평균이 .420 으로

서 매우 높다.

피어슨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다중특혜” 변수와 “특혜(향,중,동)” 변수 간 상관계수만 .90 으로 매우 높은데 두 변수는 동일한 모형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sup>1)</sup>

<표 1> 기술통계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불법둔감도	1434	.149	.360	1	0
처벌둔감도	1278	-2.553	1.030	1	-5
남성a	1436	.492	.500	1	0
결혼b	1436	.712	.453	1	0
연령	1433	40.81	12.984	80	18
월가구소득(만원)	1381	227.0	135.877	750	0
교육년수	1420	11.56	3.627	19	0
전문직c	1436	.074	.261	1	0
관리직c	1436	.026	.158	1	0
사무직c	1436	.068	.252	1	0
판매직c	1436	.131	.337	1	0
서비스c	1436	.109	.312	1	0
숙련노동c	1436	.083	.276	1	0
비숙련노동c	1436	.021	.143	1	0
농업, 임업, 수산업c	1436	.118	.323	1	0
미취업c	1436	.370	.483	1	0
유교적 사회화	1424	.257	.888	2	-2
권위주의	1436	-.106	.707	2	-2
처벌인식	1282	2.863	.754	5	1
아노미	1425	.098	.625	2	-2
주관적 계층	1413	3.476	.937	7	1
다중교류	1436	1.264	1.025	3	0
다중특혜	1432	1.805	1.212	3	0
교류(없음)d	1434	.265	.441	1	0
교류(향우회)d	1431	.010	.098	1	0
교류(종친회)d	1434	.058	.234	1	0
교류(동창회)d	1429	.293	.455	1	0
교류(향,중)d	1432	.021	.143	1	0

1) 상관관계표는 너무 커서 실지 않았으며, 논문저자에게 요청하면 얻을 수 있다.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교류(향,동)q	1429	.069	.254	1	0
교류(중,동)d	1428	.119	.324	1	0
교류(향,중,동)d	1429	.160	.366	1	0
특혜(없음)d	1433	.235	.424	1	0
특혜(향)d	1435	.024	.152	1	0
특혜(중)d	1434	.096	.294	1	0
특혜(동)d	1433	.027	.163	1	0
특혜(향,중)d	1435	.043	.202	1	0
특혜(향,동)d	1434	.040	.197	1	0
특혜(중,동)d	1434	.114	.318	1	0
특혜(향,중,동)d	1435	.420	.494	1	0

a. 기준범주: 여성

b. 기준범주: 미혼

c. 기준범주: 해당 직업 이외의 직업

d. 기준범주: 해당 범주 조합 이외의 범주

\* “향”, “중”, “동”은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를 의미한다. “교류”변수에서는 해당 단체참여를, “특혜”변수에서는 해당 연결망 구성원에 대한 특혜를 가리킨다.

## 2. 뇌물의 불법성에 대한 둔감도

<표 2>의 모형 1은 자유도 1152에 잔여편차(residual deviance)가 922.97로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므로 모형은 자료에 통계적으로 적합하다. 이 모형은 가설 1.1을 검정하는데 다중교류 변수의 로지스틱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더 많은 종류의 연결망에 참여하는 사람이 뇌물의 불법성에 대해 더 둔감함을 보여준다. 모형에 의하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중 한 가지에 더 참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불법둔감도가 26.7% [=100\*exp(.237)-100] 더 높는데 이는 상당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가설 1.2를 검정하는 다중특혜 변수의 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지연, 혈연, 학연의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더 많은 연구에 대해 특혜를 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불법둔감도가 18.5% 높다. 따라서 가설 1.1과 1.2는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lt;표 2&gt; 다중연결망이 뇌물의 불법둔감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모형 1
남성	.544**
결혼	-.137
연령(표준화)	.343*
연령제곱	-.270*
월가구소득(만원)	.002***
교육년수	.034
직업	
전문직	.760
관리직	1.381**
사무직	.149
판매직	.586
서비스직	.587
숙련노동	.341
미숙련노동	.326
미취업	.800*
유교적 사회화	-.053
권위주의	.232
처벌인식	-.298*
아노미	.484***
주관적 계층	.092
다중교류	.237**
다중특혜	.170*
상수	-3.420***
잔여편차	922.97
자유도	1152
나겔커크(Nagelkerke)의 R <sup>2</sup>	.150

\* p&lt;.05; \*\* p&lt;.01; \*\*\* p&lt;.001 (양측 검정)

이항변수를 사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표 3의 모형 2). 향우회와 동창회에 다 참여하는 사람은 둘 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보다 불법둔감도가 99.2% 더 높다. 세 가지 단체에 다 참여하는 사람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보다 불법둔감도가 95.2% 더 높다. 응답자 중 어느 단체에도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26.5%나 되고 세 단체 모두 참가하는 사람이 16.0%로서 비교적 큰 것을 감안하면 한국인들은 연결망 활동의 다과에 따라 뇌물의 불법둔감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연결망 특혜와 관련된 변수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혈연과 학연을 중시하여 특혜를 주는 사람은 특혜를 주지 않는 사람에 비해 불법둔감도가 125.5% 더 높다. 또



한 세 가지 연고 모두에 대해 특혜를 주는 사람은 특혜를 주지 않는 사람에 비해 불법  
 둔감도가 78.6% 더 높는데 이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연고에 따른 특혜를 주지 않는다  
 는 비율이 23.5%이고 세 연고 모두에서 특혜를 준다는 비율이 42.0% 임을 감안하면  
 특혜를 주는 문제에서도 한국인들은 매우 상반된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3> 다중연결망이 뇌물의 불법둔감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이항변수 사용)

독립변수	모형 2
남성	.522*
결혼	-.129
연령(표준화)	.338*
연령제곱	-.263*
월가구소득(만원)	.002***
교육년수	.042
직업	
전문직	.813
관리직	1.344**
사무직	.176
판매직	.602
서비스직	.589
숙련노동	.377
미숙련노동	.314
미취업	.824*
유교적 사회화	-.063
권위주의	.243
처벌인식	-.302*
아노미	.489***
주관적 계층	.088
다중연결망 이항변수	
교류(향)	1.187
교류(중)	.499
교류(동)	.054
교류(향,중)	.897
교류(향,동)	.689*
교류(중,동)	.407
교류(향,중,동)	.669*
특혜(향)	.846
특혜(중)	.344
특혜(동)	-.002
특혜(향,중)	.092
특혜(향,동)	.727
특혜(중,동)	.813*

독립변수	모형 2
특혜(항,종,동)	.580*
상수	-3.644***
잔여편차	913.31
자유도	1140
나겔커크의 R <sup>2</sup>	.161

\* p<.05; \*\* p<.01; \*\*\* p<.001 (two-tailed tests)

배경변수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월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농업종사자와 비교할 때 관리직 종사자나 미취업자가, 아노미 정도가 높을수록 불법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낮다. 반면 불법행위가 처벌된다고 믿을수록 둔감도는 낮아서 불법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높다.

### 3. 뇌물의 처벌가능성에 대한 둔감도

<표 4>와 <표 5>의 모형 3과 4는 가설 2.1과 2.2를 검정한다. 두 모형 모두 완전모형에 비해 적합성이 떨어지는 편차 정도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므로 자료를 적절히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처벌둔감도는 다중교류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이 모형에 의하면 응답자가 한 가지 단체에 더 참여함에 따라 처벌둔감도는 9.2% 증가한다. 여기서는 다중특혜 변수는 처벌둔감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표 4> 다중연결망이 뇌물의 처벌가능성에 대한 둔감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모형 3
남성	.049
결혼	-.044
연령(표준화)	.065
연령제곱	-.107**
월가구소득(만원)	.001**
교육년수	.047***
직업	
전문직	.099
관리직	.574**
사무직	.186
판매직	.138
서비스직	.100
숙련노동	.265

독립변수	모형 3
미숙련노동	.189
미취업	.213
유교적 사회화	-.022
권위주의	-.031
아노미	.277***
주관적 계층	.036
다중교류	.088**
다중특혜	-.025
상수	-3.519***
F	7.376***
자유도	1151
R <sup>2</sup>	.114

\* p<.05; \*\* p<.01; \*\*\* p<.001 (양측 검정)

이항변수를 사용한 모형 4는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류(향,동)” 변수와 “교류(향,중,동)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향우회와 동창회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세 단체 모두 참여하는 사람은 어느 단체에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처벌둔감도가 높다. 모형에 의하면 처벌둔감도는 전자에서 30.3%, 후자에서 30.6% 더 높다. 반면 연결망 특혜와 관련된 이항변수들은 처벌둔감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상 결과는 가설 2.1을 지지하나 가설 2.2는 지지하지 않는다.

<표 5> 다중연결망이 뇌물의 처벌가능성에 대한 둔감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이항변수 사용)

독립변수	모형 4
남성	.043
결혼	-.031
연령(표준화)	.057
연령제곱	-.099**
월가구소득(만원)	.001**
교육년수	.048***
직업	
전문직	.100
관리직	.547**
사무직	.187
판매직	.140
서비스직	.101
숙련노동	.282*

독립변수	모형 4
미숙련노동	.155
미취업	.213
유교적 사회화	-.020
권위주의	-.035
아노미	.277***
주관적 계층	.036
다중연결망 이항변수	
교류(향)	.085
교류(중)	.196
교류(동)	.044
교류(향,중)	.208
교류(향,동)	.265*
교류(중,동)	.075
교류(향,중,동)	.267**
특혜(향)	.187
특혜(중)	-.084
특혜(동)	.140
특혜(향,중)	.113
특혜(향,동)	.010
특혜(중,동)	.153
특혜(향,중,동)	-.076
상수	-3.572***
F	4.970***
자유도	1139
R <sup>2</sup>	.123

\* p<.05; \*\* p<.01; \*\*\* p<.001 (양측 검정)

배경변수의 효과는 앞서와 유사하지만 성별 차이나 연령의 효과는 사라지거나 방향이 달라진다. 연령의 경우에는 반대가 되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둔감도는 줄어들어 처벌가능성을 더 잘 인식한다.

## VI. 토론과 결론

본 연구는 전국규모의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다중연결망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물의 불법성을 인지하거나 처벌가능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낮음을 보여주었다. 지연, 혈연, 학연 중 여러 단체에 참여하거나 혹은 그런 연고에 해당되는 타인에게 특혜를 줄수록 불법성이나 처벌가능에 대해 더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위자들이 다중연결망이 제공하는 결속형 및 매개형 사회자본의 영향을 받아 뇌

물공여를 불법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불법이라고 보더라도 처벌가능성을 낮게 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연결망의 사회자본이 뇌물공여에 대한 불법성 인식이나 처벌 가능성 인식에도 영향을 줄을 보여주어 뇌물, 부패, 범죄연구 뿐 아니라 연결망과 사회자본 연구에도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에 의하면 특수한 단체나 맥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평범한 연결망 활동의 영향을 받아 뇌물의 불법성이나 처벌가능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광범위한 연결망에 의한 위법행동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또한 연고주의 연결망에서는 개별 연결이 개인에게 감정적으로 중요하므로 강한 연결망으로서 기능하지만 동시에 연결의 유지에 구체적인 자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강한 연결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다중특혜 변수는 처벌둔감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인으로서는 두 가지를 논할 수 있다. 다중특혜 변수는 뇌물의 불법성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나 처벌가능성 인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는 다중연결망 활동이 활발한 사람이 뇌물을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다보니 처벌가능성에 대해서도 둔감하게 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응답자들에게 제시한 설문지 성격상 능력이 동등한 입사지원자 중 누구에게 혜택을 더 주느냐는 질문을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고 답했다면, 다중연결망에서의 특혜는 다중연결망 단체에의 참여에 비해 부담이 덜한 것으로 느꼈을 수 있다. 다중연결망 활동이 처벌가능성에 대한 둔감도를 높인다고 해도, 이 문제를 가볍게 느끼는 점 때문에 변별력이 약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추론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발견사항은 외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Manion 1996; Yoo and Khagram 2005). 사적 연결망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집단주의와 특수주의 문화가 강한 반면 법치주의가 덜 발달한 곳에서는 다중연결망 행위가 뇌물의 불법성이나 처벌에 대한 둔감도를 높이고 결국 뇌물공여 행위가 나타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를 몇 가지 논한다. 첫째, 연결망과 뇌물인식 간 관계에서 인과성의 문제는 불분명하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 중 다중연결망 행위를 활발히 하는 사람들이 연결망 활동을 하다 보니 뇌물공여의 불법성이나 처벌가능성에 대해 둔감해졌는지 아니면 뇌물공여의 불법성이나 처벌가능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뇌물공여를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다중연결망 활동을 활발히 하는지는 본 연구에서 구별하지 못한다.

둘째, 본 연구는 2002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적용가능성에 있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것 외에도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자료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결망과 부패활동을 전국 규모로 조사한 자료는 별로 없었는데 이 주제의 중요성을 놓고 볼 때 연결망 활동과 부패활동 간 관계에 대해 다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권오성. (2005). 한국 부패의 사회,문화적 원인에 관한 연구.” 엄구호(편). 「동북아 국가의 부패: 문화, 구조, 정책」. 115-146. 서울: 역락.
- 김동훈. (2002). 「서울대가 없어야 나라가 산다: 학벌주의의 뿌리를 찾아서」. 서울: 도서출판 더북.
- 김우식. (2002). 구조적 신호 읽기: 연결망 구조와 규칙위반 행위의 조응방식. 「한국사회학」. 36(6): 57-82.
- 김용학. (2003). 한국 사회의 학연:사회적 자본의 창출에서 인적자본의 역할. 김성국·석현호·임현진·유석춘(공편). 「우리에게 연고란 무엇인가」. 99-127. 서울: 전통과 현대.
- 김영중. (1996). 「부패학」.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 백완기·전수일·하태권·박종구·이선우. (2000). 공직부패에 대한 연결망 이론적 접근. 「한국행정학회보」. 34(2): 79-100.
- 신의항·송효환. (2003). 한국재벌기업의 집단주의와 사회연결망. 김성국·석현호·임현진·유석춘 편. 「우리에게 연고는 무엇인가: 한국의 집단주의와 네트워크」. 246-339. 서울: 전통과 현대.
- 윤정구·석현호·이재혁. (2004). 한국사회 무질서의 사회심리적 메커니즘 연구: 기초질서 위반과 뇌물공연 행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8(2): 63-99.
- 윤정구·석현호·차종천. (2002). 「사회질서에 관한 조사연구」. KOSSDA-2002-002. 서울: 한국사회과학자료아카이브.
- 유의영. (2003). 한국의 지역주의: 사회 각 분야 지도급 인사 구성에 나타난 지역편중도. 김성국, 석현호, 임현진, 유석춘(공편). 「우리에게 연고는 무엇인가: 한국의 집단주의와 네트워크」. 128-191. 서울: 전통과 현대.
- Abolafia, Mitchel Y. (1996). Making Markets: Opportunism and Restraint on Wall Stree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aker, Wayne and Robert R. Faulkner. (1993). The Social Organization of Conspiracy: Illegal Networks in the Heavy Electrical Equipment Indust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837-60.
- Baker, Wayne and Robert R. Faulkner. (2004). Social Networks and Loss of Capital. Social Networks. 26: 91-111.
- Beckman, Christine and Pamela Haunschild. (2002). Network Learning: The Effects of Partners' Heterogeneity of Experience on Corporate Acquisi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7: 92-124.
- Bellair, Paul E. (1997). Social Interaction and Community Crime: Examining the Importance of Neighbor Networks. Criminology. 35(4): 677-704.
- Bernstein, Basil. (1975). Class, Codes and Control: Theoretical Studies Towards a Sociology of Language. 2nd ed. New York, NY: Schocken Books.
- Brass, Daniel J., Kenneth D. Butterfield, and Bruce C. Skaggs. (1998). Relationship and

- Unethical Behavior: A Social Network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1): 14-31.
- Brown, John S. and Paul Duguid. (1991). Organizational Learning and Communities-of-Practice: Toward a Unified View of Working, Learning, and Innovation. *Organization Science*. 2(1): 40-57.
- Browning, Christopher R., Seth L. Feinberg, and Robert D. Dietz. (2004). The Paradox of Social Organization: Networks, Collective Efficacy, and Violent Crime in Urban Neighborhoods. *Social Forces*. 83(2): 503-534.
- Burt, Ronald. (1983). Range. In Ronald S. Burt and Michael J. Minor(eds.). *Applied Network Analysis*. 176-194. Beverly Hills: Sage.
- Burt, Ronald. (2002). *Brokerage & Closure: An Introduction to Social Capit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ampbell, Karen E., and Barrett A. Lee. (1992). Sources of Personal Neighbor Networks: Social Integration, Need, or Time? *Social Forces*. 70(4): 1077-1100.
- Cartier-Bresson, Jean. (1997). Corruption Networks, Transaction Security and Illegal Social Exchange. *Political Studies*. 45: 463-476.
- Centola, Damon, Michael W. Macy, and Victor M. Eguiluz. (2005). Cascade Dynamics of Multiplex Propagation. *Physica A*. 374: 449-456.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S95-S120.
- DiMaggio, Paul (1997). Culture and Cogni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 263-287.
- DiMaggio, Paul, and Hugh Louch. (1998). Socially Embedded Consumer Transactions: For What Kinds of Purchases Do People Most Often Use Network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5): 619-637.
- Gambetta, Diego. (1993). *The Sicilian Mafia: The Business of Private Prote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ibbons, Deborah E. (2004). Friendship and Advice Networks in the Context of Changing Professional Valu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9(2): 238-262.
- Giddens, Anthony.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mbridge: Polity.
- Gould, Roger. (1991). Multiple Networks and Mobilization in the Paris Commune, 1871.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6): 716-729.
- Granovetter, Mark.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1360-1380.
- Granovetter, Mark. (2007). The Social Construction of Corruption. In Victor Nee and Richard Swedberg(eds.). *On Capitalism*. 152-172.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ines, Valerie A. and Jeanne S. Hurlbert. (1992). Network Range and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 254-266.

- Hunt, Jennifer. (2004). Trust and Bribery: The Role of the Quid Pro Quo and the Link with Crime. Discussion Paper No. 1179.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 Ingram, Paul, and Peter W. Roberts. (2000). Friendships among Competitors in the Sydney Hotel Indust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2): 387-423.
- Johns, Leigh, and Mirko Bagaric. (2002). Bribery and Networking: Is There a Difference? *Deakin Law Review*. 7(1): 159-171.
- Kasarda, John D., and Morris Janowitz. (1974).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328-39.
- Kingston, Christopher. (2007). Parochial Corruptio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63(2007): 73-87.
- Kollock, Peter and Jodi O'Brien. (1992). The Social Construction of Exchange. In Edward Lawler, Barry Markovsky, Cecilia Ridgeway, and Henry A. Walker(eds.). *Advances in Group Processes*, Vol. 9. 89-112. Greenwich: JAI Press.
- Krohn, Marvin D., James L. Massey, and Mary Zielinski. (1988). Role Overlap, Network Multiplexity, and Adolescent Deviant Behavior.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1(4): 346-356.
- Lai, Gina and Odalia Wong. (2002). The Tie Effect on Information Dissemination: The Spread of a Commercial Rumor in Hong Kong. *Social Networks*. 24(1): 49-75.
- Lambert-Mogiliansky, Ariane. (2002). Why Firms Pay Occasional Bribes: The Connection Econom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8: 47-60.
- Lin, Nan, W.M. Ensel, and J.C. Vaughn. (1981). Social Resources and Strength of Ties: Structural Factors in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393-405.
- Manion, Melanie. (1996). Corruption by Design: Bribery in Chinese Enterprise Licensing. *Journal of Law, Economics, & Organization*. 12(1): 167-195.
- McPherson, M., Smith-Lovin, L., and Brashears, M. E. (2006). Social Isolation in America: Changes in Core Discussion Networks over Two Decad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 353-375.
- Milroy, Lesley and James Milroy. (1992). Social Network and Social Class: Toward an Integrated Sociolinguistic Model. *Language in Society*. 21(1): 1-26.
- Orr, Julian. (1990). Sharing Knowledge, Celebrating Identity: War Stories and Community Memory in a Service Culture. In David Middleton and Derek Edwards(eds.). *Collective Remembering*. 169-189.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Parsons, Talcott, and Edward Shils(eds.). (1951).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ortes, Alejandro.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Powell, Walter W., Kenneth W. Koput, and Laurel Smith-Doerr. (1996).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and the Locus of Innovation: Networks of Learning in Biotechnolog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1: 116-145.
- Putnam, Robert.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Reagans, Ray, and Bill McEvily. (2003). Network Structure and Knowledge Transfer: The Effects of Cohesion and Rang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8: 240-267.
- Sampson, Robert J., and W. Byron Groves. (1989). Community Structure and Crime: Testing Social-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4): 774-802.
- Schuller, Tom, Stephen Baron, and John Field. (2000). Social Capital: A Review and Critic. In Stephen Baron, John Field, and Tom Schuller(eds.). *Social Capital*. 1-3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mith-Lovin, Lynn. (2007). The Strength of Weak Identities: Social Structural Sources of Self, Situation and Emotional Experienc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0(2): 106-124.
- Tavits, Margit. (2010). Why Do People Engage in Corruption? The Case of Estonia. *Social Forces*. 88(3): 1257-1280.
- Treisman, Daniel. (2000). The Causes of Corruption: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6(3): 399-457.
- Uzzi, Brian. (1999). Embeddedness in the Making of Financial Capital: How Social Relations and Networks Benefit Firms Seeking Financ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4: 481-505.
- Verbrugge, Lois M. (1979). Multiplexity in Adult Friendships. *Social Forces*. 57: 1286-1309.
- Wellman, Barry and Scot Wortley. (1990). Different Strokes from Different Folks: Community Ties and Social Suppor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 558-588.
- Yoo, Jong-sung and Sanjeev Khagram. (2005). A Comparative Study of Inequality and Corrup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0(1): 136-157.
- Younts, C. Wesley. (2008). Status, Endorsement and the Legitimacy of Deviance. *Social Forces*. 87(1): 561-590.
- Zelditch, Morris, Jr. (2001). Processes of Legitimation: Recent Developments and New Direction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4(1): 4-17.

투고일자 : 2011.04.17

게재일자 : 2011.06.17